

어머니의 아련한 추억

허 두 념

어머니의 어린시절 여름나기는 삼포에 관한 추억으로 가득하다. 70년대 잘 살기 운동으로 한창 경제를 일으키던 시절이라 피서라는 단어는 단지 사전어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더운 여름 물가에 가서 한번 놀아보기만 하여도 여름더위는 반쯤 물러간 셈이었다.

춘천군 신동면에는 삼포말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당시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먼 마을이었다. 그곳에 어머니의 이모가 살고 계셨다. 그래서 온 가족이 8월이 되면 큰마음 먹고 피서라는 미명하에 삼포말로 놀러를 가셨다. 어머니가 삼포말 가는 버스 안에서 멀미가 나서 고생스러울 때가 되면 외할머니께서 내리자는 말을 했다곤 한다. 땀양벌이 내리치는 논둑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내가 어머니로 환생하여 이모집을 가고 있는 듯 아름다운 정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매번 엄마가 논둑길 따라 개울속 돌다리를 건너면 이모께서 반갑다시며 집 앞에서 기다리셨다.

수영복은 아주 호사스러운 의상이고 그저 속옷 차림으로 이모집 앞에 개울가에서 찜병찜병 노는 오후 시간은 세상의 시름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개울물이 깊지 않은데도 물가에서 놀아본 적 없는 어머니는 익사할까 두려워 물이끼에 조금만 미끄러져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어머니가 물놀이에 열중할 무렵 외할머니와 이모님은 밭에서 옥수수를 따서 솔에 찌시기도 하고 깻잎이 자라면 맛이 없다며 깻잎도 따시면서 그간 만나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다. 농촌에서 줄 수 있는 거라곤 고추, 깻잎, 고야(자두보다 작은 과일)이라며 한 보따리씩 싸서 마루에 얹어 놓을 때가 되면 해그늘이 개울을 따라 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더위에 치친 엄마 아빠 이모 그리고 아이들이 대접을 하나씩 손에 들고 개울가에 숨어있는 다슬기를 찾기 시작한다. 다슬기는 까맣게 생겨 마치 작은 돌처럼 보이는 위장을 취하기 때문에 물속에 코를 박고 손으로 잡다보면 그 재미가 솔솔 생긴다. 어른들은 물속에서 더위도 식히며 다슬기를 잡는다고 깊숙이도 들어가고 아이들은 놀이반 다슬기반으로 잡다보면 해가 조금밖에 남지 않아버린다. 그제서 집으로 돌아와 잡은 다슬기를 해감시키고 된장국에 다슬기를 넣고 푹 끓인다. 이모네와 외할머니 가족은 저녁상에 다슬기해장국을 올려놓고 옷핀이나 바늘로 다슬기 알맹이를 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다슬기알맹이를 옷핀에 여러개 대롱대롱 매달아주시던 검게 그을린 이모의 얼굴은 시골 아낙네의 순박함이 묻어났다.

보따리를 하나씩 챙겨 버스종점으로 걸어나올 때면 여름날 시원한 물소리가 여우가 나올 것 같은 소리로 변해서 무척 무서웠다. 더구나 시골은 불빛도 많지 않아 발을 헛디뎠다. 물에 빠질까 걱정을 하며 막차를 타고 집으로 올 때면 한없이 손을 흔들던 이모의 얼굴이 잠속으로 빠져버렸다.

내년에는 더 재미있게 물속에서 놀 거라며 보채던 어머니는 이제 이모님과 외할아버지를 하늘 나라로 보내고 물속에서 놀기에는 너무나 큰 어른이 되었다. 그래도 여름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련히 떠오르는 유년시절의 추억이 있어 행복하다시며 우리들에게도 개울가 있는 집에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고 노상 이야기 하신다.

깨끗한 개울이 있는 집에서 더위를 이기며 자연과 호흡하며 자란 사람은 자연처럼 인성도 맑을 거라시며, 자연의 변화를 체험하며 자라 적응력도 뛰어날 거라시며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하나씩 안겨주셨다.

나에게도 개울가 물소리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어항놓은 곳에서 물고기도 잡고 다슬기를 잡으려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추억처럼.....